

광양에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한다

광양시·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
탄소중립 실천 다짐 정기총회
시민 체감형 탄소중립 사업 심의

광양시와 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는 지난 6일 광양시청 창의실에서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정기총회에는 광양시장, 고재운 ㈜포스코 광양제철소장, 박병관 상임대표를 비롯해 37개 참여기관·단체 대표자와 실무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연대와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5년 사업 및 감사보고와 함께 2026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하고, 임원 선임을 비롯한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임원 선임과 관련해 박병관 상임대표는 2022년 선출된 이후 1회 연임을 거쳐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으며, 허형재 운영위원장이 신임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아울러 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는 지역 환경보전과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박병관 전 상임대표와 이흥재 자연보호광양시협의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는 2025년 한 해 동안 ▲탄소중립 실천가 양성 교육 ▲도심 벽면 녹화 및 탄소흡수원 관리사업 ▲한파 영향 취약계층 지원사업 ▲탄소중립 실천 홍보 캠페인 ▲기후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워크숍 및 포럼 개최 등 지역 여건에 맞춘 다양한 실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



년 신규 실천 사업으로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 ▲기후위기 폭염 영향 취약계층 지원사업 ▲찾아가는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임 홍보 및 캠페인 등 시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고재운 광양제철소장은 “광양제철소는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바탕으로 저탄소 생산체제 전환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해 푸른 광양과 지속 가능한 미래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병관 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 전 상임대표는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시민사회가 연대와 실천을 통해 지난 한 해

계획된 모든 사업을 충실히 추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설 신임 임원 및 운영위원들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탄소중립은 민간의 지속적인 실천과 연대가 함께할 때 비로소 현실이 된다”며 “지속가능한 광양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력과 연대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는 2009년 설립 이후 ▲탄소중립 실천가 1834명 양성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6700개소 추진 ▲환경교육센터 운영 ▲탄소중립 생활 실천 시민 캠페인 등 지역 기반의 다양한 환경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고흥군, 도양읍 도시재생 주민 참여형 ‘리빙랩’ 운영

녹동항 배후상권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의견 제안

고흥군이 도양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형 리빙랩(Living Lab, 생활실험실)을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성황리에 운영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도시재생 사업발굴에 나섰다. <사진>
이번 리빙랩은 도양읍의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면밀히 반영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목표로, 주민, 전문가,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상권 활성화, 관광 활성화, 거점시설 기능 강화 등 지역 현안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직접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해 의미를 더했다.
리빙랩에 참여한 주민들은 ▲녹동항 배후상권 활성화 방안 ▲관광자원 연계 콘텐츠 발굴 ▲커뮤니티 거점시설의 활용 방안 ▲보행환경 및 생활 기반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의견을 제시했다. 군은 이날 도출된 일부 제안을 향후 단위 사업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



이다.
행사 현장을 방문한 공영민 고흥군수는 리빙랩 참여 주민들과 소통하며 “도시재생은 행정이 만드는 계획이 아니라, 주민 여러분의 삶과 일상이 반영돼야 완성된다”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 건설과 관계자는 “이번 리빙랩 운영 결과를 토대로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도시재생을 통해 도양읍의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리빙랩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 특성을 살린 단계별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순천만 탐방로 고엽갈대 주민과 함께 베요

50여명 참여 3개월간 정비 작업

순천시가 지난 9일부터 4월30일까지 약 3개월간 소조기 간조 물 때 전후 5~6일 동안 순천만습지 일원에서 갈대숲 탐방로 고엽갈대 제거와 원형갈대 군락 갈대 베기 작업을 추진한다.
순천만은 명승 제41호로 지정된 국내 대표 생태관광지로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겨울철 고엽갈대가 누적될 경우 갈대 생장이 저해되고 경관을 해칠 수 있어 새순이 돋기 전 목은 갈대를 베어 줘야 새순이 풍성하게 돌아나가에 아름다운 황금빛 갈대꽃이 핀다.
이번 사업은 대대지역 주민과 대대어촌계 등 주민 약 50명이 참여하는 작업으로 순천만 갈대숲 탐방로 고엽갈대 제거, 순천만 갯벌 원형갈대 군락 복원을 위한 갈대 제거 및 해양 쓰레기

수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원형갈대 군락은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내부 구간까지 대대적으로 정비해 순천만 랜드마크인 원형갈대 군락의 생육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베어진 갈대는 국가정원 시설물 보수, 순천만 정자 지붕 보수 및 탐방로 갈대 울타리 제작·보수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순천대학교와 연계해 필요 농가에 사료 활용 및 축사 바닥 깔개 등으로 지원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고엽갈대 제거와 원형갈대 군락 정비는 순천만의 생태적 건강성을 높이고, 주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정비를 통해 순천만의 생태경관을 개선하고 갈대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함과 동시에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소득 증대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군 중학생 10명이 지난 3일부터 5일간 중국 절강성 보타구에서 홈스테이 등 우호교류 행사를 가졌다.

곡성 중학생들 중국 보타구 4박5일 홈스테이

10여명 우호교류·문화체험

곡성군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중국 절강성 보타구를 방문해 홈스테이 및 문화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국제교류 홈스테이는 곡성군 관내 2개 중학교에서 선발된 중학생 10명이 참여했으며, 청소년들에게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함양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중국 현지 가정에서 직접 생활하는 홈스테이를 통해 학생들이 중국의 일상 문화를 체험하고 문화적 차이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곡성군과 보타구 간 국제 우호교류의 배경이 된 심원과 남동예곡 체험마을, 주산도시전시관 등 보타구 주요 문화·관광지를 방문해 중국의 역사와 전통, 현대 도시 발전상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양 지역 학생 간 교류 활동을 통해 서로의 학교생활과 문화를 소개하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상호 이해와 우정을 쌓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참가 학생들은 “이번 국제교류를 통해 시야를 넓히고 국제 사회에 대한 이해를 키우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중학생 국제교류 홈스테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직접 해외 문화를 체험하며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였다”라며, “앞으로도 국제 우호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청소년들이 미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2007년부터 중학생 국제교류 홈스테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한·중 양국 청소년들이 상호 교류하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군은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

한 사람의 보험비지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의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M%T

알바 댄는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손해보험협회
Korea Fire Insurance Association

IGAFA 보험GA협회
보험사기방지지원단